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6. 1. 26.(월) 14:00
2. 장소 :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7	민조홍*, 안등용**, 민병원, 배성아, 정예진, 장현수, 김유환	안동인(간사)
불참인원	5	문혜성, 김관창, 이명경, 한은주, 한유경	

\* 의장    \*\* 부의장

### 4. 안건

- 제1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제2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제3호의안: 윤리헌장 제정 보고

### 5. 개회선언

- 가. 간사는 문혜성, 김관창, 이명경, 한은주, 한유경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전체 평의원 12명 중 7명 참석으로 과반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나.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총학생회장과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제9기 대학평의원회 학생 평의원 2명(정예진, 장현수)이 새롭게 위촉되었음을 안내하다.
- 다. 간사는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안내하다.

### 6. 안건 심의

#### 가. 심의사항

- 제1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1호의안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현재 학칙에 입학정원이 대학과 학과별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는데, 정시 통합선발을 위한 호크마학부의 별도 정원은 학칙에 반영하지 않고 학칙 제5조제2항을 근거로 입시 요강에 반영해 운영해 왔으며,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하여 선발해 왔다고 말한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통합선발 관련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라는 안내를 받아 이를 위한 학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 (3) 간사는 정시 통합선발을 진행하는 대학과 학과를 통정원으로 학칙에 반영할 경우, 기존 대학·학과별 정원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기존 체계를 최소한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별표1]을 기준입학정원으로 변경하고, [별표2]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제2항을 개정하여 모집단위를 통합하여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말한다. 이는 기존 대학·학과별 정원을 유지하면서 정시 통합선발과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말한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해당 내용으로 학칙에 반영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요청은 충족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한다.
- (4) 의장은 정시 통합선발, 호크마학부 선발 인원에 대한 학칙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5) 간사는 의장의 지적과 같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정시 통합선발 인원을 학칙에 명확히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별표2]를 신설하면서 호크마학부의 선발 인원을 기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 (6) 배성아 평의원은 [별표2]의 입학정원 1,784명이 정시 통합선발(호크마학부) 선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인지 질문한다.
- (7) 간사는 호크마학부 선발 인원이 포함된 인원이며, 호크마학부생은 2학년부터 전공을 결정하고, 학년도마다 선발 인원이 유동적이므로, 이를 괄호로 표시하였다고 답변한다.
- (8) 배성아 평의원은 공과대학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는 정시 통합선발 인원에서 제외된 것인지 질문한다.
- (9) 간사는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는 첨단분야로 신·증설된 학과로 선발인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시 통합선발 인원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한다.
- (10) “기준입학정원”이라는 용어에 대해 김유환 평의원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며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지, 배성아 평의원은 교육부 등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인지 질문한다.
- (11) 기획팀장은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별표2]가 [별표1]을 근거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학칙 제5조제2항에서 입학전형에 따라 제1항의 [별표1]을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2]의 근거 역시 [별표1]에 있다고 해석된다고 답변한다.
- (12) 김유환 평의원은 기준입학정원에 대하여 혼란이 생길 여지가 없는지 재질문한다.
- (13) 간사는 기존 입학정원 체계를 변경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정시 통합선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오해가 생길 여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하다.

- (14) 배성아 평의원은 모호하지 않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간사는 용어를 수정하면 오히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추가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 (15) 의장은 타 대학 사례를 검토했는지 질의하고, 기획팀장은 본교의 입학전형이 타 대학과 상이하므로 본교 실정에 맞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조율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답변하다.
- (16) 정예진 평의원은 호크마학부 입학생의 전공 선택 시 특정 학과·전공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하여 학교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다.
- (17) 의장은 호크마학부, 전공자유선택제는 대학평의회가 아닌 대학혁신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이며, 총학생회장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만큼 그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 (18) 의장은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개정안이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 후 심의를 종료하다.

#### □ 제2호의안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2호의안으로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첫 번째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육실습 학점 4학점은 학기당 최대 취득 학점과는 별도로 취득할 수 있으나, 취득 기준에 대한 기존 표현이 “교육실습 이수 학기”로 되어 있어 취득 시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교육실습 교과목”으로 취득 대상을 명확히 표현했으며, 내용상 종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말한다.
- (3) 간사는 두 번째 개정안과 관련해,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가 신설됨에 따라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석사학위 수여 요건에 기존 요건 외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에 논문 게재’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또한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는 기존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석사학위 수여 요건만을 적용한다고 말한다.
- (4)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해당 대학원에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질문하다.
- (5) 간사는 해당 개정안은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발의되었다고 답변하다.
- (6) 의장, 김유환 평의원, 배성아 평의원은 제22조 [별표4]와 관련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여, 최종 ‘교육실습 교과목(4학점)은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과 별도로 추가 취득 가능’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다.

- (7) 장현수 평의원은 대학원 학칙이 모호하여 학생들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말한다.
- (8)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개정안의 자구를 수정하여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한 후 심의를 종료하다.

#### □ 제3호의안 : 윤리헌장 제정 보고

- (1) 의장은 제3호의안으로 윤리헌장 제정 보고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윤리헌장 추진 경과에 대하여, 교수 위원, 직원 위원, 학생 위원, 법인 위원 및 전문 위원 다섯 명을 윤리헌장 수립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세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문장, 문구, 단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한 윤리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 (3) 의장은 위원들에게 검토 의견을 묻다.
- (4) 의장은 윤리헌장의 순서가 학생이 먼저 오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말하고, 정예진 평의원이 이에 동의하다.
- (5) 간사는 윤리헌장은 학교의 개입 없이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제정된 것이라고 말하다.
- (6) 정예진 평의원은 ‘이화의 품위와 명예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를 문의하고, ‘유지’ 보다 ‘드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다.
- (7) 안등용 평의원은 윤리헌장 수립 추진위원회에 직원 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말하며, 해당 표현은 초안에서는 직원에만 적용되었으나 학생 위원이 학교의 모든 구성단위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구성단위에 적용되었다고 설명하다.
- (8) 김유환 평의원은 ‘열심히 한다’라는 표현은 진취적인 표현이지만, 한편으로 의무를 지우는 표현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다.
- (9) 민병원 평의원은 [전문]에 흥익인간·기독교 정신·진선미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말하다. 또한 외부에서 이화의 정신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 “성장과 나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이화의 정신이었는지 다

시 의문이 들었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고 말한다.

- (10) 의장은 8월에 보고하였던 초안에 대하여 의장을 비롯하여 대학 평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정된 윤리헌장에 해당 의견들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한다.
- (11) 정예진 평의원은 윤리헌장이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많고, '진선미'와 '섬김과 나눔'이 현재 학생들에게 공감될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다. 특히 '섬김과 나눔'은 시혜적이거나 정신을 강요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화의 정신과 다르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또한 '차별과 혐오를 지양한다'는 내용이 학생 파트에만 포함된 점에 대해, 모든 파트에 공통으로 반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 (12) 안등용 평의원은 학생·교원·직원 내용은 각 파트별로 검토했으며, 학생 파트는 학생회장이 학생회 내 논의를 거쳐 수정했고, 다른 파트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 (13) 의장은 윤리헌장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의안 보고를 종료하다.

#### 나. 기타사항

- (1) 의장은 제9기 교수 평의원의 임기가 2026년 2월 28일로 종료되며, 간사 또한 2026년 1월 31일자로 임기가 종료되어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임을 안내하고, 2년의 임기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간사와 평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

####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26년 1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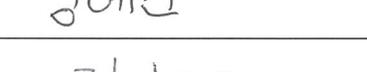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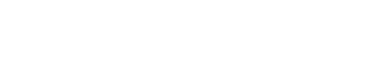
의 장      민 조 홍



민조홍 (인)

## 대학평의원회 2026년 제1차 회의

일시	2026. 1. 26.(월) 14:00	장소	본관 대회의실
안건	1.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2.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3. 윤리헌장 제정 보고		

구분	성명	서명
교수 평의원	민조홍	
교수 평의원	문혜성	
교수 평의원	민병원	
교수 평의원	김관창	
직원 평의원	안등용	
직원 평의원	배성아	
학생 평의원	정예진	
학생 평의원	장현수	
동창 평의원	이명경	
동창 평의원	한은주	
대학발전 평의원	김유환	
대학발전 평의원	한유경	